

예술의 가치평가분석: 원주의 박경리 선생을 중심으로

임 상 오*

신 철 오**

.....

이 논문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현존하는 예술가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1980년도부터 원주에 거주하면서 대하소설 『토지』를 완간한 박경리 선생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 고찰한 다음, 제3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연구절차를 소개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박경리 선생에 대한 가치의 추정결과를 언급하고 마지막 장은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 서 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와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문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속시키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지향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출과 전파능력의 구비가 필수적 요건으로 작용하며 지역기반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의 유통과 전달이 아닌 새로운 생산과 창출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박혜자, 2000; 임상오 외, 2006). 여기서 새로운 정보의 요체는 지식이며 이것이 지니고 있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문화경제학), e-mail: solim@sangji.ac.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mail: shin@kmi.re.kr

는 가치지향성으로 인해 지역적 문화기반과 상호 분리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단순한 정책적 대안의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발전전략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박혜자, 2000).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문화예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원주지역의 유명 예술인에 대하여 문화자산으로써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존재가치¹⁾의 관점에서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 연구에서의 노력은 강원도 원주지역의 문화자산으로써의 유명 예술인의 존재가치와 지역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측정에 대한 노력은 원주가 앞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논의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유명 예술인의 존재가치를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경제학적 가치측정 방법론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통해 실증연구로써 추정하고자 한다. 실증연구의 대상으로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면서 원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박경리 선생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박경리 선생의 원주지역 거주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 가운데 하나인 존재가치를 CVM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는 강원도 서남지역에 위치한 인구 30만의 도·농복합도시로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물류와 교통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김주원, 2003). 따라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 유명예술인의 존재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은 국내외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써 추후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²⁾ 유명 예술가 유치에 따른 가치 평가 분석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연구절차를 소

1) 문화경제학의 발전 흐름 속에서 예술의 긍정적 외부효과(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증가치, 위평가치, 교육가치) 및 예술과 문화를 둘러싼 쟁점에 관해서는 임상오 외(2006), pp.21-28 참조.

2) 예술 및 문화 분야에 대한 CVM 방법론의 적용에 대해서는 Navrud and Ready(2002), Noonan(2003), 임상오 외(2006) 참조.

개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박경리 선생에 대한 존재가치의 추정결과를 언급하고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II. 방법론의 개요

이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서 CVM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CVM은 다른 기법에 비해 첫째,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비사용가치 내지는 존재가치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 CVM을 통해 경제학적 가치개념에 부합하는 히스적 후생(Hicksian welfare)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Hanemann, 1984; Hanemann, 1989; Hanemann et al., 1991). 또한 현재까지 CVM은 적용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응용사례가 존재하며, 상당부분의 연구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응답자가 CVM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진술한 금액을 실제로 지불할 것 인가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CVM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Loomis, 1990; Arrow et al., 1993).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CVM의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Habb and McConnell, 2002).

- ① CVM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유명 예술인이 정주하는데 대한 지불의사액을 측정할 수 있다.
- ②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도출한다.
- ③ 일반적으로 CVM 연구는, 이 연구와 같이, 저항적인 지불의사액을 예방하며,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을 통제할 수 있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질문을 주로 이용한다.
- ④ 현실적인 지불수단(payment vehicle)을 사용하여 가상성 편향(hypothetical bias)를 제거할 수가 있다.
- ⑤ 다양한 기관과 연구단체에서 이용되어져 왔으며 미국 수자원협회(Water Resource Council),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등에서 공인된 방법론에 해당한다.³⁾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당초 이론이 개발되었던 환경가치 분야에서 벗어

나 경영학, 공학, 정보통신 및 문화경제학 등의 분야로 활발하게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Mitchell and Carson, 1989; O'Doherty, 1996; Yoo, 2002; Navrud and Ready, 2002).

1. CVM의 운용절차

이 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주지역 유명 예술인의 존재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실시한 CVM 운용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2. 지불의사액의 추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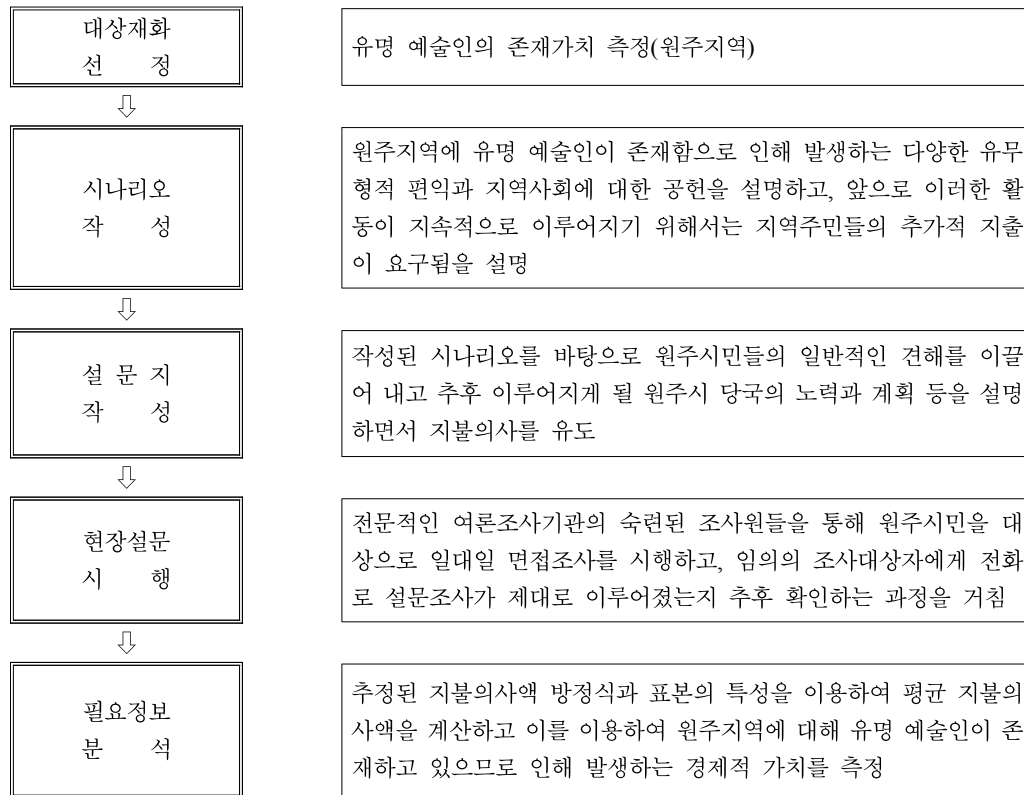
일찍이 Hanemann(1984, 1989)은 CVM 적용의 핵심에 해당하는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 WTP)을 추정하기 위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이론에 근거하여 후생가치를 이끌어 내었다.⁴⁾ 소비자 또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주어진 화폐소득과 개인의 특성에 근거한 간접효용함수($u(\cdot)$)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

$$u(j, y; s) = v(j, y; s) + e_j, j=0, 1 \quad (1)$$

식(1)의 j, y, s 는 각각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자원의 존재여부, 소득, 그리고 개인의 특성변수를 나타내며, v 와 e 는 각각 개인의 간접효용함수에서 확정적

3) CVM은 환경재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액을 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그 어느 방법 이상으로 정확하여 이의 사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WRC(Water Resources Council)는 1979년부터 여행비용 평가법과 함께 CVM을 수자원 프로젝트 평가기법에 포함시켰으며, ACE(U.S Army Corps of Engineers)도 CVM을 채택하여 20여 개의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EPA도 CVM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것은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적용하여 실제로 응답자 개개인이 누리는 편익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CVM이라고 할 때에는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절차 전반을 말하며, 그 중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형을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므로 WTP의 추정모형은 CVM 적용에 핵심적인 과정에 해당한다.



[그림 1] CVM의 운용절차

(deterministic)인 부분과 확률적(stochastic)인 부분을 의미한다. $j=1$ 인 경우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반대로 $j=0$ 은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1)로 표현된 소비자 또는 응답자의 효용함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관찰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적 성분을 갖게 되며, 만일 소비자가 “문화자원의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A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u(1, y-A; s) \geq u(0, y; s) \tag{2}$$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만약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자원의 증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효용의 증가분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예”라고 답하고 제시금액 A 에 대한 지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text{response is yes}\} = \Pr\{\Delta v(A) \geq \eta\} = F_{\eta}[\Delta v(A)] \quad (3)$$

여기서 $\eta = e_0 - e_1$ 이며, $F_{\eta}(\cdot)$ 은 $\Delta v \geq 0$ 인 경우 “예”의 응답, $\Delta v \leq 0$ 인 경우 “아니오”의 응답이 관찰되는 η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로 응답자가 주어진 제시금액 A 에 대해서 지불하겠다는 대답을 한 경우라면 응답자의 실제 WTP값을 C 라고 가정할 때 다음의 식(4)가 성립한다.

$$\Pr\{\text{response is yes}\} = \Pr\{C \geq A\} \equiv 1 - G_c(A) \quad (4)$$

식(3)과 (4)를 비교하면 결국 다음의 식(5)가 도출된다.

$$1 - G_c(A) = F_{\eta}[\Delta v(A)] \quad (5)$$

결국 식(5)를 다룬다는 것은 분포함수 $G_c(\cdot)$ 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WTP는 미지의 확률변수이므로 후생척도로서 대표값을 추정해야 한다. WTP의 평균값(C^+)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C^+ = E(C) = \int_0^{\infty} [1 - G_c(A)] dA - \int_{-\infty}^0 G_c(A) dA \quad (6)$$

III. 실증연구절차

1. 설문조사

CVM에 의한 설문조사는 크게 조사기획단계, 실사단계로 나뉘고 조사기획단계는 자

료 수집, 설문지 작성,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1차 확정된 설문지를 토대로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을 선택하여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한 후 수정을 거쳐 설문지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실시단계는 확정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설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가 포함된다. 예컨대, 설문조사원 교육, 설문 실시, 설문지 작성, 자료 입력, 확인 및 수정 단계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분석단계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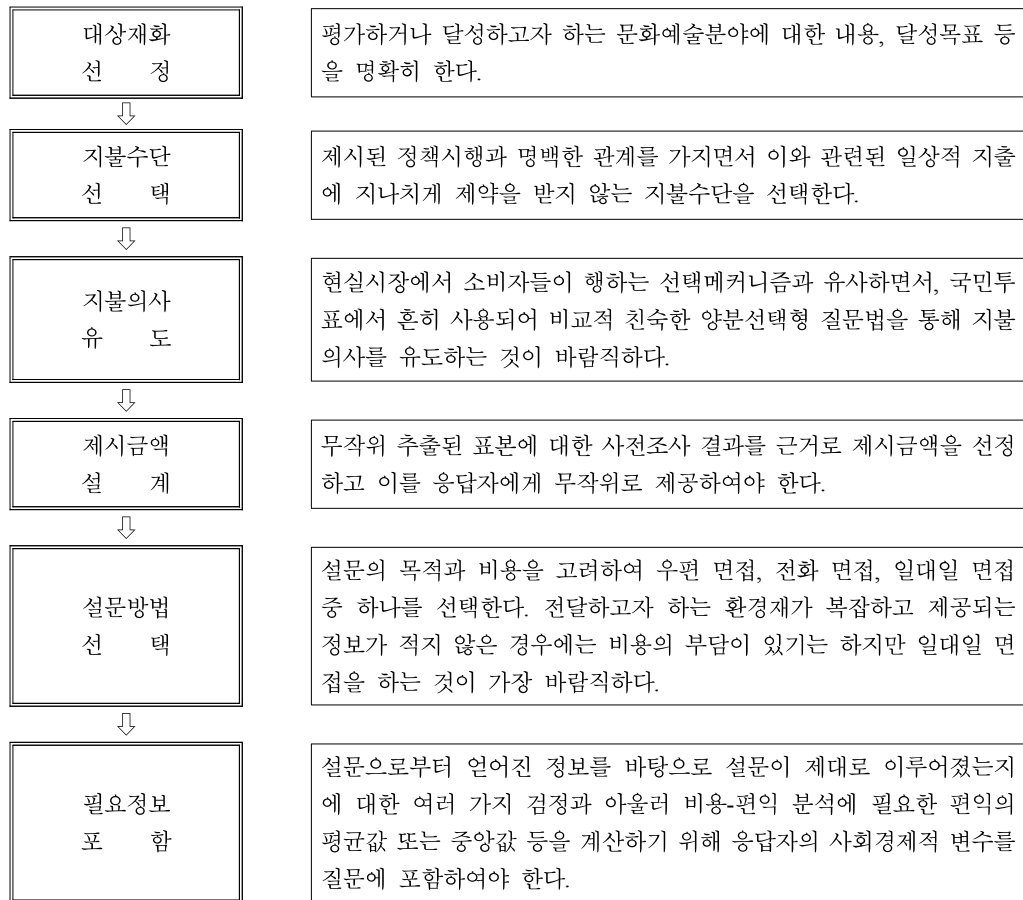
2. 설문지 작성

설문지 작성절차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 대해 본 연구에서 행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재화 선정과 지불수단 선택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대상재화와 이에 대한 조건부 시장을 설정해야 한다. 지불의사에 관한 핵심질문을 하기 전에 설문지는 조건부 시장의 일반적 상황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응답자로부터 박경리 선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응답자가 박경리 선생의 작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다음 단계로 원주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는 표준적인 절차를 채택하였다.

CVM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재화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유명 예술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토지문화관이나 문학공원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방문객수 등의 구체적인 조사자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자료를 스크랩하여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원주시 당국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여 박경리 선생의 원주 거주 사실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2> 설문지 작성절차

또한 조건부 시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응답자가 밝히고자 하는 지불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성 있는 지불수단이 되도록 시장을 설정하는 것은 응답자가 진정한 가치를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가상적 상황을 좀 더 현실화시킨다는 점, 또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정 지불수단을 결정할 때는 우선,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의 관련 정도, 둘째,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정도, 셋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평가하려는 대상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있으며 사실과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존재가치 측정에 대한 지불수단으로써 추가적인 지방세를 선택하였다.

2) 지불의사 유도방법 선택

CVM 연구에서 지불의사 유도방법이란 응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의 지불의사액을 표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방법을 의미한다. CVM의 실증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question), 경매법(bidding game), 지불카드법(payment card),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question)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형과 국민투표에서 투표하는 유형과 유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를 유도했다. 이러한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은 앞서 설명한 NOAA의 주요 지침에도 부합하는 CVM 연구의 표준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합리적 소비자라면 그 물건의 사용으로부터 얻게될 효용이 1,000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물건을 구매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정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시 투표자는 그 법안에 내용이 좋으면 ‘예’라는 응답을 싫으면 ‘아니오’란 응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양분선택형 질문은 단 1회에 걸쳐서 미리 설정된 금액을 “공공재 공급의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한번만 대답하는 방식이다.

이 때 예상되는 평균 지불의사액에 의거하여 설문하고자 하는 금액들이 결정되며, 이들 중 임의로 한 가지 금액을 각 응답자에게 제시한다.⁵⁾ 다만 각 금액들은 같은 수의 응답자들에게 배당된다.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이 본인의 지불의사액보다 같거나 작으면 ‘예’라고 대답하고, 높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금액과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를 측정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서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여 응답률이 높고, 출발점 편이나 설문조사원 편이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비합리적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

5) 예상되는 평균 지불의사액은 사전조사(pretest)에 의해 결정된다.

능성이 적으면서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여 응답률이 높고, 출발점 편이나 설문조사원 편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비합리적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면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되 추정에 있어서의 통계적 효율성 (statistical efficiency)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배의 금액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2배의 금액에 대해 추가질문을 포함하였다. 만약 첫 번째 제시금액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이면 두 번째 제시금액은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에는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이 되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에는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 된다.

3) 제시금액 설계와 설문방법

CVM 연구에서의 제시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지불의사액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주민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시행한 후, 이들로부터 얻은 결과를 통해 5,000원부터 35,000원까지 총 10개의 제시금액을 설정하였다.⁶⁾

<표 1> 제시금액 설계

제시금액(원)	명 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5,000	25	10.0	10.0
6,000	25	10.0	20.0
8,000	25	10.0	30.0
10,000	25	10.0	40.0
15,000	25	10.0	50.0
18,000	25	10.0	60.0
20,000	25	10.0	70.0
25,000	25	10.0	80.0
30,000	25	10.0	90.0
35,000	25	10.0	100.0
합 계	250	100	-

6) 사전조사는 2006년 2월에 실시하였다.

실제 설문은 2006년 3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으며, 설문방법은 응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뷰 마지막에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물어 임의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설문 감독자가 확인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응답자들의 대답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응답이 빠진 항목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여 답을 얻었다.

3. 표본설계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그 결과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선택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도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선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어진 여건과 예산의 제약 하에서 원주시민 250명을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표 2> 원주지역별 표본설계

지역	명 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태장동	25	10.0	10.0
명륜동	20	8.0	18.0
단구동	20	8.0	26.0
단계동	20	8.0	34.0
문막읍	15	6.0	40.0
개운동	15	6.0	46.0
봉산동	15	6.0	52.0
일산동	15	6.0	58.0
무실동	15	6.0	64.0
행구동	15	6.0	70.0
반곡관설동	15	6.0	76.0
원인동	13	5.2	81.2
학성동	13	5.2	86.4
홍업면	11	4.4	90.8
중앙동	10	4.0	94.8
소초면	7	2.8	97.6
우산동	6	2.4	100.0
합 계	250	100	-

<표 3> 응답자의 성비

구 분	인원(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남	125	50	50
여	125	50	100
계	250	100	-

<표 4> 응답자의 직업

직 업	인원(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공무원	5	1.6	1.6
회사원	57	32.8	34.4
자영업	40	37.6	72.0
주부	104	25.6	97.6
서비스직	2	0.8	98.4
무직	4	1.6	100.0
계	250	100.0	-

<표 5> 응답자의 교육수준

구 분	인원(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초등학교	6	2.4	2.4
중학교	9	3.6	6.0
고등학교	128	51.2	57.2
대학교	100	40.0	97.2
대졸이상	7	2.8	100.0
계	250	100.0	-

4. 설문조사와 설문의 주요 내용

설문전문회사에 소속된 전문가의 도움으로 설문지를 가능한 한 쉽고, 짧고, 압축된 형태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선택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검증하였다. 설문은 2006년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동서

리서치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원들이 조사목적과 설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의 실시 전에 교육과정을 거쳤다.

연구에서 사용된 CVM 설문의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⁷⁾

- A4. 귀하께서는 박경리 선생께서 원주에 거주를 하면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가구 총 지방세로 [제시금액1] (_____)**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A5로 가십시오]
 (2) 없다 —▶ [A6으로 가십시오]
- A5.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박경리 선생께서 원주에 거주를 하면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가구 총 지방세로 [A4의 2배 가격] (____)**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A8로 가십시오]
 (2) 없다 —▶ [A8로 가십시오]
- A6.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박경리 선생께서 원주에 거주를 하면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가구 총 지방세를 통해 [A4의 1/2배 가격] (_____)**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A8로 가십시오]
 (2) 없다 —▶ [A7로 가십시오]
- A7.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1) 널 의사가 없다 [A9로 가십시오]
 (2) 조금은 널 의사가 있다. [B로 가십시오]

7) 설문의 전체 내용은 임상오 외(2006)를 참조.

IV. 유명 예술가의 존재가치 실증결과

1. 추정결과

WTP 추정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Wald 통계량의 결과는 추정된 방정식의 모든 추정계수가 1% 및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WTP 추정모형의 결과 - 유명예술인의 지역사회 존재가치

변수	추정치
상수	0.344 (2.351)*
표본의 수	250
Log-likelihood	-315.35
Wald 통계량 (p-value)	113.74 (0.000)**
평균 WTP	12551원
t-value	10.86**
95% 신뢰구간	10828 - 14757
99% 신뢰구간	10519 - 15221

주: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들은 각 계수값에 대한 t-값을 의미한다. 또한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Wald 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든 추정계수가 0이라는 것이며, 이 통계량에 대응하는 p-값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시금액에 해당하는 변수는 추정을 편의를 위해 1,0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했다. 95% 신뢰구간 및 99%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몬테칼로 모의실험(Monte-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되 반복횟수는 5,000번으로 하였다.

존재가치에 대한 평균 WTP 추정값은 12,551원으로 계산되었고, t-value가 10.86으로 나타나 평균이 0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기각되어 추정된 WT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WTP의 추정과 관련된 응답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의 점추정치 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Krinsky and Robb(1986)이 제시한 몬테칼로 모의실험(Monte Carlo simulation)을 적용하였다. <표6>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95%와 99% 신뢰구간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 원주지역 존재가치에 따른 총 편익

본 절에서는 앞서 구한 가구당 유명 예술가에 대한 존재가치의 추정결과를 확장하여 원주시 지역에 대한 박경리 선생의 존재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의 크기를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WTP 추정치의 확장은 CVM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표 7> 원주지역 존재가치의 크기

단위: 억 원/년

구 분	원주시 가구규모	총 편익
평균 WTP	85,400	10.71

먼저 표본을 통해 얻어진 WTP 추정치를 모집단의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전문조사기관의 주관 하에 원주시 안에서의 인구분포를 고려한 무작위 표본추출과 직접설문을 통해 얻어졌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가치의 추치를 2000년 기준 원주시 가구규모인 85,400가구로 환산하는 경우 연간 총 10.71억원 가량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의 크기는 설문조사에서도 시행하였듯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써 원주지역에 소설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 선생이 거주함으로써 원주 지역 주민들이 갖게 되는 가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 론

예술, 특히 예술가는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박경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원주시민들은 한 가구당 연간 약 13,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원주시 전체로 환산하면, 박경리 선생이 원주에 계심으로써 연간 약 11억 원 정도의 가치(즉,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⁸⁾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때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특정 예술가를 대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 문화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유명 예술가의 생가 복원을 둘러싼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유명 예술가를 위한 창조환경의 조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전환에 일정한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연구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명 예술가의 사후에 그 기념관이나 문학관,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전에 지역연고가 있거나 지역의 발전전략에 맞는 예술인들을 직접 유치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집중 지원하여 성과를 나타낼 때 산업기반시설의 유치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못지않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가 곧 바로 특정 예술가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연구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 원주시민들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선호체계 속에서 도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8) 참고로, 현재의 토지문화관을 새롭게 정비할 경우 어느 정도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냐는 질문을 통해서 한 가구당 연간 약 10,000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약 5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투자를 새롭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금액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근 원주에서 토지문화관을 정비하기 위해 약 10억 원 정도의 투자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을 감안할 때, 이 연구 결과는 원주시가 정책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투자를 시민들이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세한 내용은 임상오 외(2006) 참조.

따라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조예(향수능력)가 깊어질수록 예술가가 갖고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지불용의가격)는 변화되게 마련이라는 것을 감안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 곽승준 · 전영섭, 1995, 『환경의 경제적 가치』, 학현사.
- 김주원, 2003, 「지방자치단체 정체성 확립방안 — 원주 생명문화 ·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pp. 209-235.
- 박경리, 1994,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박경리의 원주 통신』, 나남.
- 박숙진, 2004,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제10권 제1호, pp. 299-317.
- 박혜자, 2000,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전략」, 『도시행정학회보』, 제13권 제1호, pp. 27-48.
- 유기준 · 김정민, 2003, 「원주지역 문화관광축제의 평가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치악산 복사꽃 축제와 한지 문화제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7권 제1호, pp. 49-57.
- 유승훈 · 곽승준 · 신철오, 2002,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ing Inconvenience Cost of Spam Mail」, 『2002년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 학술대회』, pp. 247-279.
- 임상오, 2000, 「지역문화 진흥과 지방정부(재정)의 역할」, 『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정책학회, 제2권, pp. 279-297.
- 임상오, 2004, 「지역축제의 가치와 문화정책」, 『문화경제연구』, 한국문화경제학회, 제7권 제1호, pp. 51-75.
- 임상오 · 김기봉 · 도건우 · 신철오, 2006, 『유명 예술가 유치에 따른 가치 평가 분석』, 문화관광부.
- 찰스 랜드리 지음(임상오 옮김), 2005, 『창조도시』, 해남.

- Arrow, K., R. Solow, P.R. Portney, E.E. Leamer, R. Radner and H. Schuman (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Washington, D.C.
- Baumol, William J. and Bowen, William G.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the MIT Press.
- Bille Hansen, Trine (1995), "The Willingness-to-Pay for the Royal Theatre in Copenhagen as a Public Good", *Journal of Behavioral Economics*, 21: 1-28.
- Frey, Bruno S. and Pommerehne, Werner W. (1989), *Muses and Markets: Explorations in the Economics of the Arts*. Blackwell, Oxford.
- Frey, Bruno S. (2000), *Arts & Economics: Analysis & Cultural Policy*, Springer, Berlin.
- Habb, T.C. and K.E. McConnell (2002), *Valuing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Edward Elgar.
- Hanemann, W. 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66, pp. 332-341.
- Hanemann, W. M. (1989),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Repl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1, pp. 1057-1061.
- Hanemann, W.M., J.B. Loomis and B.J. Kaninnen (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3, pp. 1255-1263.
- Krinsky, I. and A.L. Robb (1986),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8, pp. 715-719.
- Loomis, J (1990), "Comparative Reliability of the Dichotomous Choice and Open-Ended Contingent Valuation Techniqu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18, pp.78-85.
- Mitchell, R.C., and R.T. Carson (1989), *Using Surveys to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ource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 Morrison, William G. and West, Edwin G. (1986), "Subsidies for the Performing Arts: Evidence on Voter Preference", *Journal of Behavioral Economics*, 15: 57-22.
- Navrud, Stale and Ready, Richard C. (2002) (eds.), *Valuing Cultural Heritage: Applying Environmental Valuation Techniques to Historic Buildings, Monuments and Artifacts*, Edward Elgar,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
- Noonan, Douglas S. (2003), "Contingent Valuation and Cultural Resource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7: 159-176.
- O'Doherty, R. (1996), *Planning, People and Preferences: A Role for Contingent Valuation*, Avebury, Aldershot.
- Park, T., J. B., Loomis, and M. Creel (1991), "Confidence Intervals for Evaluating Benefits Estimates from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Studies," *Land Economics*, Vol. 67, pp. 64-73.
- Throsby, David and Withers, Glenn (1983), "Measuring the Demand for the Arts as a Public Good: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in W.S. Hendon and J.L. Shanahan (eds.), *Economics of Cultural Decisions*, Abt Books, Cambridge, Mass.
- Throsby, David (2001),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성제완 옮김, 『문화경제학』, 나남, 2004)
- Yoo, S.-H. (2002), "Extend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to Pre-test-market Evaluation: the Case of a Cable Television Servic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pp. 315-318.

